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된 아토피 피부염 관련논문에 관한 고찰

서민수 · 김경준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 교실

The Study on Atopic Dermatitis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Min-Su Seo · Kyung-Jun Kim

Objective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trends of Atopic dermatitis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JKOOOD)

Methods : We have reviewed 43 articles of atopic dermatitis which were published in JKOOOD during 1988-2008. All the paper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original article, review article and case report.

- Results** : 1. The number of journals associated with atopic dermatitis is 43 papers: 16 original articles(16/43%), 16 case reports(16/43%), 11 review articles(11/43%).
2. Classification of 16 original articles in terms of methodology: 11 experimental studies(11/16%), 5 descriptive studies (5/16%), 0 analytic studies(0%).
3. Classification of 16 case reports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ients: 1 person(8/16%), 2 persons(3/16%), 3 persons(2/16%).

Conclusions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rends of Atopic dermatitis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during 1988-2008. It is needed to adopt the qualitative methods of evaluation in order to develop a level of evidence.

Key words :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atopic dermatitis, article, review.

교신저자 : 김경준,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17번지 경원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Tel. 032-770-1215, E-mail : kko215@hanmail.net)

• 접수 2009/10/31 • 수정 2009/11/27 • 채택 2009/11/30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
되었음.

I. 서 론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율은 근래에 들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개 유소아기에 발병하나 청소년, 성인에서도 발병율이 증가하며 중증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윤 등²⁾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중증도별 치료실태를 관찰한 논문에서 지적하듯 아토피 피부염이 중증일수록 환자들은 반복되는 질환의 경과에 따른 병원·의원의 치료의 반복에 만족하지 못하여 한방치료를 통해 근치를 하고자 한방병원·한의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의 근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며, 현재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에 관하여 기존에 진행되어 온 연구들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하여 자기성찰 및 비판의 과정을 거쳐 향후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검색란과 기존에 발간된 학회지를 참조하여 1988년 창간호부터 2008년 21권 3호까지 게재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논문에 대해 연도별, 유형별 분류를 하였으며, 임상논문만 따로 모아 각 논문에 사용된 치료법과 평가도구를 분석하였다. 논문 분류 방식은 권 등³⁾이 2003년까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한 방법과의 연속성을 위해 크게 원저, 종설, 증례보고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종설(review article)은 다른 곳에 이미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설명적 또는 해석적인 요약문이며, 원저(original article)는 다른 곳에는 보고한 적이 없는 수집된 자료결과, 결과에 대한 분석, 결론을 포함하는 연구물이고, 증례보고(case report)는 하나 또는 수명의 환자에서 이루어진 관찰로 집단으로 모으거나 분석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언급된 것을 말한다⁴⁾. 그리고 원저는 다시 크게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로 구분하였는데 심⁵⁾, 박⁶⁾, 권 등³⁾이 학회지에 수록된 원저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용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원저를 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기술적 연구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파악하여 기술하는 연구방법이고 빈도로 집계되어 옴으로 기술하며 자료의 수집에 사용된다. 분석적 연구는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수행되고, 단면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의 3가지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 가설의 설계와 증명이 수행된 후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동물실험으로 일차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한 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며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현장 실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원래 역학적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분석-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분류를 위해 이 개념을 차용하였다³⁾.

III. 결 과

1. 연도별 아토피 피부염 관련논문 게재 편수

본 학회지에 게재된 아토피 피부염 관련논문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 9편(20.93%), 2008년에 8편(18.60%)의 순으로 많았고 그 외의 해에도

2001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2~5편씩 게재되었다. 2001년 이전에는 1994년, 1995년, 1999년에 각각 1편씩 발표되었으나, 2001년 이후부터 매년 발표되면서 점차 게재 편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권 등³⁾이 1988년부터 2002년도까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수량적으로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2002년도까지 발표된 전체 308편 논문 가운데 아토피 피부염 관련 논문은 8편(2.60%)이었으나,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표된 전체 355편 논문 가운데 아토피 피부염 관련 논문은 35편(9.86%)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Table 1).

2. 논문의 유형별 분류

게재된 논문의 유형별 분류로는 원저가 16편, 증례보고 16편으로 각각 37.21%씩 차지하였고, 종설이 11편으로 25.58%를 차지하였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발표된 아토피 피부염 관련논문만 따로 보면 원저 1편, 종설 3편, 증례보고 4편이었으나,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원저 12편, 종설 8편, 증례보고 15편이 발표되었다(Table 1).

(1) 원저 관련항목

원저를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기술적 연구가 5편(31.25%), 실험적 연구가 11편(68.75%)이었으며, 실험적 연구는 동물실험 연구가 6편, 임상실험 연구가 5편이었다. 반면 단면적 연구나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분석적 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술적 연구에서는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임상적 연구, 청장년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사상체질 분석, 脈診器를 이용한 임상적 고찰 등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Articles Associated with Atopic Dermatitis According to Type from 1988 to 2008

	종설	원저	증례보고	합(%)
1994	0	0	1	1 (2.33)
1995	0	0	1	1 (2.33)
1996	0	0	0	0 (0)
1997	0	0	0	0 (0)
1998	0	0	0	0 (0)
1999	1	0	0	1 (2.33)
2000	0	0	0	0 (0)
2001	1	0	1	2 (4.65)
2002	1	1	1	3 (6.98)
2003	1	2	2	5 (11.63)
2004	1	1	3	5 (11.63)
2005	1	2	1	4 (9.30)
2006	1	1	2	4 (9.30)
2007	1	5	3	9 (20.93)
2008	3	4	1	8 (18.60)
합(%)	11 (25.58)	16 (37.21)	16 (37.21)	43 (100)

11편의 실험연구 가운데 전임상단계의 동물실험 연구는 총 6편이었다. 동물실험 연구의 주제로 선택된 처방은 消風清營湯加味方, 當歸飮子加減方, 消風散加減方과 外治方 병용, 防風通聖散, 葛根解肌湯加味方과 三黃洗劑加味方 병용 등이었으며, 약물로는 小葉麥門冬을 주제로 선택한 연구가 있었다. 6편의 동물실험 연구 모두 실험동물로 쥐를 사용하였는데 4편은 NC/Nga mouse를 사용하였고, 2편은 BALB/c계 mouse를 사용하였다.

임상실험 연구는 총 5편 가운데 升葛湯 散劑를

사용한 연구, 連翹升麻湯 함유 한방화장품에 대한 연구 2편만이 실험군-대조군 설정을 통해 이루어졌다(Table 2).

(2) 증례보고 관련항목

증례보고의 증례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증례 1례인 경우가 8편으로 증례보고 총 16편 중 50.00%로 절반을 차지하고, 증례 2례인 경우가 3편으로 18.75%, 증례 3례인 경우가 2편으로 12.50%를 나타내었다. 16편 중 단일치료법에 대한 증례는 없었으며 모두 처방, 외치법, 침구치료, 물리요법, 행동수정요법, 식이요법, 관장법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용한 증례들이었다(Table 3).

(3) 종설 관련항목

종설은 총 11편으로 1999년부터 1년에 1편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가 2008년에는 3편이 발표되었다. 초반에는 문헌 고찰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다 최근 들어 국내 논문 및 해외 논문의 최신지견을 review하는 형식의 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편 가운데 9편의 논문에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기재하였다.

Table 3. Distribution of Case Reports According to Number of Cases

증례 수	논문 수(%)
1례	8 (50.00)
2례	3 (18.75)
3례	2 (12.50)
4례	0 (0)
5례	1 (6.25)
6례	1 (6.25)
7례	0 (0)
8례	1 (6.25)
합(%)	16 (100)

Table 2. Classification of Original Articles in Terms of Methodology from 1988 to 2002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		합(%)
		A	B	C	D	E	
2002	1	0	0	0	0	0	1 (6.25)
2003	1	0	0	0	1	0	2 (12.50)
2004	0	0	0	0	0	1	1 (6.25)
2005	0	0	0	0	2	0	2 (12.50)
2006	1	0	0	0	0	0	1 (6.25)
2007	1	0	0	0	1	3	5 (31.25)
2008	1	0	0	0	2	1	4 (25.00)
합(%)	5 (31.25)	0 (0)	0 (0)	0 (0)	6 (37.50)	5 (31.25)	16 (100)

* A: 단면 연구, B: 환자-대조군 연구, C: 코호트 연구, D: 동물실험 연구, E: 임상실험 연구

3. 임상논문 분석

관찰·분석한 연구를 저자가 편의상 지칭한 것으로 위의 기준에 의하면 증례보고와 임상실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임상논문이라 함은 인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처치를 시행하여 그에 대한 경과 및 효과를

Table 4. Methods of Treatment and Evaluation in the Clinical Studies

Author (year)	Article	Publication journal	Main treatment	Other treatment	Method of evaluation	Numbers of subjects	Result
서 외 3 (2008)	柴胡桂枝湯加味方 투여로 호전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증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1(3)	柴胡桂枝湯加味方	외치법(외용약 습부, Aroma lotion, Aroma wet dressing), 침, 행동수정요법, 식이요법	SCORAD index, 사진촬영	1	호전 후 재발
김 외 4 (2008)	連翹升麻湯이 함유된 한방화장품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임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1(2)	連翹升麻湯이 함유된 한방 크림(실험군), Atopico skin care cream (대조군)		SCORAD index, 사진촬영, Total Ig E, Eosinophil count, 총괄적 유효성 평가, 피부측정 장비 (피부표면온도, 경피수분손실량, 피부수분함유량, 피부산성도)	실험군 17, 대조군 16	유의
황 외 5 (2007)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七葉膽을 함유한 화장품의 임상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3)	七葉膽 함유 화장품		윤화정 등이 제시한 Clinical index, 총괄적 유효성 평가, Total IgE, Eosinophil count	46	유의
신 외 8 (2007)	升葛湯을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2)	升葛湯 散劑 (실험군), 위약 (대조군)		윤화정 등이 제시한 Clinical index, 피부진단 장비(유·수분 함유량, 경표피수분손실량, 흑반·홍반 측정), IgE Mast-식이성 40종 검사	실험군 13, 대조군 10	유의
김 외 3 (2007)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한방 추출물이 포함된 외용제에 대한 임상 효과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2)	Medibebe 제품 4종 (LG생활건강)		SCORAD index, Skindex-29, Total IgE	50	유의
손 외 1 (2007)	濕熱로 변증한 급성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험 6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2)	清熱利濕湯加減	외치법(黃柏 전탕액 습포, Aroma oil 마사지), 침, 온열부항, 광선요법, 행동수정요법, 식이요법	SCORAD index, 사진촬영	6	호전, 호전 후 재발
김 (2007)	세명대 한방병원 부인/소아과에 내원한 아토피성 피부염환자의 임상치험 2례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2)	알리지 1방	외치법(외용약 당진액 목욕), 행동수정요법	SCORAD index, 사진촬영	2	호전
홍 외 4 (2007)	상한론 처방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1례 보고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2)	大柴胡湯, 半夏瀉心湯加石膏	외치법(외용약 당진액 습부, Aroma oil), 침	SCORAD index, 사진촬영	1	호전

Table 4. 계속

Author (year)	Article	Publication journal	Main treatment	Other treatment	Method of evaluation	Numbers of subjects	Result
허 외 5 (2006)	외치요법을 위주로 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증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9(3)	외치법(외용약 탕전액 습부, Aroma lotion)	약물치료	SCORAD index, 사진촬영	1	호전
정 외 1 (2006)	화폐상 습진을 동반한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9(2)	清熱四物湯加減, 消風散加味, 胡麻散加味, 加減補中益氣湯, 加減十全大補湯	외치법(외용약 습부, 시원, SA1, 일황고), 침, 광선치료, 행동수정요법, 식이요법	SCORAD index, Total IgE, Eosinophil count	1	호전
심 외 3 (2005)	아토피 피부염 치험 2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8(2)	습진 1호방, 清肝健脾湯加減	외치법(외용약 습부), 침, 부항, 광선요법, 행동수정요법	ADSI, 사진촬영	2	호전
심 외 1 (2004)	아토피성 피부염의 광선치료(GI-2000) 효과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7(3)	GI-2000		정환수·방형돈 등이 개발한 측정도구, Total IgE, Eosinophil count	21	유의
임 외 4 (2004)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방적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7(3)	창방, 淸肌散	침, 외치법(녹차 탕전액 Dressing)	Clinical index, Eosinophil count, 사진촬영	1	호전
윤 외 2 (2004)	蘆薈 Dressing을 활용한 급성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험 8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7(3)	蘆薈 전탕액 Dressing	약물치료, 침, 뜸, 식이요법	SCORAD index, VAS, 사진촬영	8	호전
정 외 1 (2004)	桂枝加黃芪湯으로 치료한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험 3례 - 삼출을 주증상으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7(2)	桂枝加黃芪湯	침, 식이요법	사진촬영	3	호전
박 외 1 (2003)	六味地黃湯加味方으로 치료한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험 5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6(2)	六味地黃湯加味方	외치법(한방 아토피원 보습크림)	불명	5	호전
심 외 2 (2003)	만성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외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6(1)	補血疎風湯加減	침, 외치법(시원G BC, 세제방, 훈증요법), 대장세척, 행동수정요법	SCORAD index, 사진촬영	1	호전
구 외 1 (2002)	만성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 치험 3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淸血四物湯加味방	침, 부항, 종합가시광선요법, 외치법(향기요법, 자운고), 행동수정요법	SCORAD index, 사진촬영	3	호전
김 (2001)	급성 화폐상 습진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방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加味消風散, 銀花瀉肝湯	광선요법	사진촬영	1	호전 후 재발
정 외 1 (1995)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단식치료 2례	대한외관과학회지, 8(1)	단식요법	관장요법, 광선요법	불명	2	호전
지(1994)	아토피성 피부환자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7(1)	단식요법	약물치료, 외치법(연고제), 부항요법, 광선요법, 관장요법	불명	1	호전

(1) 약물치료 및 외치법

임상논문 총 21편(증례보고 16편, 임상실험 연구 5편) 가운데 약물치료가 사용된 연구와 외치법이 사용된 연구가 각각 16편(76.19%)씩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약물치료만을 치료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1편(4.76%), 외치법만을 치료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3편(14.29%)이었고, 대부분의 경우인 13편(81.25%)에서는 약물치료와 외치법이 병행된 사례였다.

약물치료의 경우 각각의 연구마다 사용된 처방이 달라 특정한 빈용처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외치법의 경우 외용약 탕전액을 습부한 경우가 9편(42.86%), Aroma therapy가 5편(23.81%)씩 있었으나 각각 따로 적용되지 않고 병행된 경우도 4편(19.05%)이 있었고, 기타 제형화된 외용제제를 사용한 경우도 5편(23.81%) 있었다. 외치법의 경우도 단일 외치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둘 이상의 치료법을 병행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외용약 탕전액 습부에서 사용된 본초를 살펴보면 黃柏·苦蔘(6회), 黃連·金銀花(4회), 蛇床子·地膚子(3회), 浮萍草·白礬(2회)의 순으로 다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Aroma therapy에서 사용된 essential oil은 Tea tree·Lavender(3회), Chamomile(2회), Lemon·Mandarin(1회) 순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2) 기타 치료법

이 밖에 침치료가 사용된 경우는 10편(47.62%), 기타 치료로서 광선요법이 7편(33.33%), 행동수정요법이 7편(33.33%), 식이요법이 5편(23.81%), 관장요법이 3편(14.29%), 단식요법이 2편(9.52%)이 있었으나 각각의 치료법이 독립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연구에서 약물치료, 외치법, 침치료, 기타 치료가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침치료의 경우 10편의 논문에서 치료법으로 병행되었으며, 침치료만을 사용한 치험례는 없었다.

침치료에 사용된 혈위를 사용빈도 순으로 나열했을 때, 체침의 경우 合谷·太衝·足三里·曲池(5회), 血海(3회), 阿是穴(3회), 三陰交·外關·百會·翳風(2회) 순으로 사용되었고, 사암침의 경우 肺正格(3회), 大腸正格(2회), 三焦正格·肝正格·脾正格(1회)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씨침의 경우 金枝, 駟馬, 木穴, 指駟馬, 靈骨이 1회씩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3) 평가방법

아토피 피부염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scale로서 SCORAD index가 11편(52.38%)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ADSI가 1편(4.76%), 기타로 clinical index가 사용된 논문이 3편(14.29%) 있었다. 그리고 삶의 질 측정도구로 Skindex-29가 SCORAD index와 병행하여 사용된 논문이 1편(4.76%)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 평가 scale 외에 혈액학적 검사로 6편(28.57%)의 연구에서 Total IgE를 측정하였고, 5편(23.81%)의 연구에서 Eosinophil count를 시행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참고하였다. 이 외에 사진촬영을 통해 병변 부위 상태를 관찰·기록한 경우가 12편(57.14%)이었고, 피부진단장비를 사용하여 피부의 유·수분 함유량, 표피수분손실량 등을 측정한 경우가 2편(9.52%)이 있었다. 평가방법이 언급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도 3편(14.29%)이나 있었다(Table 4).

Ⅳ. 고 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는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지로서 1988년에 '대한외관과학회지'라는 명칭으로 제1권 1호가 간행된

이후 1998년까지 매년 1회씩 간행되었다. 이어서 1999년부터는 매년 2회씩 간행되었고 2002년부터는 '대한안ibi인후피부과학회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³⁾. 2003년부터는 매년 3회씩 간행되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22권 2호까지 발간된 상태이며 게재된 논문의 수는 총 706편에 이른다.

창간으로부터 약 21년 동안 해당 학회의 핵심적인 학회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역대 학회지의 수록 논문의 경향성에 대해 고찰하는 자아성찰 형식의 논문으로서 2003년 권 등³⁾이 본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연구논문들의 경향성을 고찰한 논문이 한 편 있을 뿐이다.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의 분석을 통한 경향성 파악과 수량적, 질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게재논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연도별, 질환별로 접근한 review를 통해 개별 질환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한의학계에서도 전 등⁷⁾이 요통을 중심으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에 게재된 임상논문들을 분석한 연구와 백 등⁸⁾이 대한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행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을 주제로 선택하여 대한안ibi인후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된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수량적인 분석과 연구동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대한안ibi인후피부과학회지로만 한정하였는데 이는 본 학회지 투고 논문의 경향분석을 한 기존의 연구 중에 단일질환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이 아직 없었으며, 향후 국내 한의학계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연구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연구 차원에서 한방피부과 관련 학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본 학회의 연구 동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한의학계의 아토피 피부염 연구 동향과 본 학회의 아토피 피부염 연구 동향을 비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학회지의 아토피 피부염 연구 동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연구대상 선정은 대한안ibi인후피부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검색란과 기존에 발간된 학회지를 참조하여 1988년 창간호부터 2008년 21권 3호까지 게재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논문 분류 방식은 권 등³⁾이 2003년까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한 방법과의 연속성을 위해 크게 원저, 종설, 증례보고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위의 방식에 근거하여 대한안ibi인후피부과학회지에 1988년 창간호부터 2008년 21권 3호까지 발간된 학회지 중 아토피 피부염을 주제로 한 논문들의 연도별 편수를 살펴보면 전체 논문 총 663편 가운데 43편(6.79%)을 차지하며, 특히 2001년 이후부터 매년 2~5편씩 발표되면서 점차 게재 편수가 증가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권³⁾, 서⁹⁾ 등의 논문에서 언급하였듯 2001년 이후로 관련 논문이 급증하게 된 것은 한방전문제도(한의사전문회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전문수련과정 중 연차별 1편 이상의 임상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가장 큰 원인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⁹⁾. 이로 인해 전체 논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아토피 피부염 관련 논문의 편수도 증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권 등³⁾의 분석에서 2002년도까지 발표된 전체 308편 논문 가운데 아토피 피부염 관련 논문은 8편(2.60%)이었으나,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표된 전체 355편 논문 가운데 아토피 피부염 관련 논문은 35편(9.86%)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 관련 논문 총 43편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원저가 16편, 증례보고 16편으로 각각 37.21%씩 차지하였고, 종설이 11편으로 25.58%를 차지하였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발표된 아토피 피부염 관련논문만 따로 보면 원저 1편, 종설 3편, 증례보고 4편이었으나,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원저 12편, 종설 8편, 증례보고 15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원저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데 이는 실험적 연구 논문(동물실험 연구, 임상실험 연구)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원저를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기술적 연구가 5편(31.25%), 실험적 연구가 11편(6.88%)이었으며, 실험적 연구는 동물실험 연구가 6편, 임상실험 연구가 5편이었다. 반면 단면적 연구나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분석적 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저 자체의 논문 편수는 증가하였으나 주로 기술적 연구나 실험적 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시사하며, 분석적 연구의 특성상 가설을 설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대규모의 전후향적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기간과 고비용이 든다는 점, 다기관 연구의 활성화가 유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한의학계 내에서 분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분석적 연구가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분석적 연구의 발전이 부진했던 것에 비해 실험적 연구 가운데 특히 임상실험 연구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이 또한 주로 2007년 이후로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는 근래에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잘 설계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실험 연구에 대한 시도를 통해 근거의 수준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라 하겠다. 하지만 한방

임상 시험을 계획할 때 문제점은 뚜렷한 임상 진료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질환이 많아 이를 표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임상에서 실제 처방하는 방제 약의 구성 약물들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를 intervention으로 할 경우 시험의 재현성과 약제의 독성 문제 등 기본적인 시험약 선정 기준에서 검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¹⁰⁾.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어려움 외에도 기존에 게재된 임상시험 연구들의 질적인 면을 간단히 살펴보면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 연구의 질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평가 기준(Scales)은 구체화된 형식으로 질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며 적용이 쉬워 연구들 간의 비교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포함 가능한 항목들 중에서 특히 무작위화당(randomization), 이중 맹검(double blinding), 탈락에 대한 기술의 3가지 항목은 비뚤림(Bias)을 줄이는 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Jadad 질 평가 기준(Jadad Quality Assessment Scale, Jadad scale)은 이러한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대표적 질 평가 도구이다¹¹⁾.

본 연구에서는 Jadad scale을 이용하여 score를 부여하는 질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간단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 학회지에 게재된 아토피 피부염 관련 임상실험 연구 총 5편 가운데 2편만이 실험군-대조군 설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2편 모두 무작위배정을 사용하였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배정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 중 1편만이 이중맹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임상실험 연구 5편 모두 연구대상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연구목표에 따라 각기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5편 가운데 4편에서 탈락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임상연구 논

문 5편 가운데 4편은 Hanifin and Rajka의 진단 기준을 사용했으며, 1편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기준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한약물을 개입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직까지의 임상시험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잘 설계된 연구 프로토콜에 의한 질 높은 연구에 근거한 정보가 임상 치료 지침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 의료계 상황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연구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 고찰이 최¹⁰⁾에 의해 발표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 향후의 임상연구 설계에 도움을 주어 수준 높은 논문의 질을 기대해야 할 것이며, 무작위대조시험 논문의 질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 연구의 근거수준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방법에 있어서 논문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자료수집 방법의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의 속성을 수량화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타당성 있고 신뢰도 있는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¹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험 연구와 증례보고를 포함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논문들을 따로 분석하여 각 논문에 사용된 평가 척도들을 살펴보았다. 아토피 피부염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scale로서 SCORAD index가 11편(6.88%)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ADSI가 1편(6.25%), 기타로 clinical index가 사용된 논문이 3편(18.75%) 있었다. 그리고 삶의 질 측정도구로 Skindex-29가 SCORAD index와 병행하여 사용된 논문이 1편(6.25%)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 평가 scale 외에 혈액학적 검사로 6편(37.50%)의 연구에서 Total IgE를 측정하였고, 5편(31.25%)의 연구에서 Eosinophil count를 시행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참

고 하였다. 그러나 평가방법이 언급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도 3편(18.75%)이나 있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술자의 주관적 평가만 이루어진 경우, 단일 scale만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진촬영만 시행한 경우도 있으나 많은 수의 논문에서 scale과 함께 혈액학적 검사,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자하는 시도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의 논문들에 비해 점차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논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환자의 기능적 증상개선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특성상¹²⁾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을 관심 있게 다룬 논문이 기술적 연구에 김 등¹³⁾의 논문 1편, 임상실험 연구에 김 등¹⁴⁾의 논문 1편 밖에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V. 결 론

1. 연도별 아토피 피부염 관련논문 게재 편수

본 학회지에 게재된 아토피 피부염 관련논문은 총 43편이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 9편(20.93%), 2008년에 8편(18.60%)의 순으로 많았고 그 외의 해에도 2001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2~5편씩 게재되었다. 2001년 이전에는 1994년, 1995년, 1999년에 각각 1편씩 발표되었으나, 2001년 이후부터 매년 발표되면서 점차 게재 편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논문의 유형별 분류

게재된 논문의 유형별 분류로는 원지가 16편, 증례보고 16편으로 각각 37.21%씩 차지하였고, 중

설이 11편으로 25.58%를 차지하였다.

(1) 원저 관련항목

원저를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기술적 연구가 5편(31.25%), 실험적 연구가 11편(68.75%)이었으며, 실험적 연구는 동물실험 연구가 6편, 임상실험 연구가 5편이었다. 반면 단면적 연구나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분석적 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 임상실험 연구의 경우 한약물을 개입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2) 증례보고 관련항목

증례보고의 증례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증례 1레인 경우가 8편으로 증례보고 총 16편 중 50.00%로 절반을 차지하고, 증례 2레인 경우가 3편으로 18.75%, 증례 3레인 경우가 2편으로 12.50%를 나타내었다. 16편 중 단일치료법에 대한 증례는 없었으며 모두 처방, 외치법, 침구치료, 물리요법, 행동수정요법, 식이요법, 관장법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용한 증례들이었다.

(3) 종설 관련항목

종설은 총 11편으로 1999년부터 1년에 1편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가 2008년에는 3편이 발표되었다. 초반에는 문헌 고찰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다 최근 들어 국내 논문 및 해외 논문의 최신지견을 review하는 형식의 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임상논문 분석

임상논문 총 21편(증례보고 16편, 임상실험 연구 5편) 가운데 약물치료가 사용된 연구와 외치법이

사용된 연구가 각각 16편(76.19%)씩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인 13편(61.90%)에서는 약물치료와 외치법이 병행된 사례였다. 약물치료의 경우 각각의 연구마다 사용된 처방이 달라 특정한 빈용처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외치법의 경우 단일 외치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둘 이상의 치료법을 병행한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각각의 치료법이 독립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 외치법, 침치료, 기타 치료가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된 평가척도의 경우 시술자의 주관적 평가만 이루어진 경우, 단일 scale만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진촬영만 시행한 경우도 있으나 많은 수의 논문에서 scale과 함께 혈액학적 검사,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자하는 시도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된 아토피 피부염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시행된 단순한 수량적, 기술적 분석으로 향후에는 본 학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한 다양한 질적 평가 및 메타분석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개별 질환별 또는 치료법별로도 이러한 논문 분석의 시도가 이루어져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근거수준 강화와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한의계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연구 동향 및 추세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손정민, 김희택, 홍승욱. 제천 지역 소재 초등 학교 학생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9; 22(2):163-75.

2. 윤영희, 최인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증중도별 치료 실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9;22(1):172-80.
3. 권강, 서형식. 大韓眼耳鼻咽喉皮膚科學會誌에 掲載된 研究論文들의 傾向性 考察.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1-32.
4. 손대곤, 송근정, 장석준, 이한식. 대한 응급의학회지 논문의 분석 및 고찰. 대한응급의학회지. 1997;8(1):24-30.
5. 심경원, 이기정, 이용삼 등.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분석. 대한가정의학회지. 1998;19(4):353-63.
6. 박영석. 최근 10년간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임상시험 논문의 분석. 대한암학회지. 2000;32(2):431-8.
7. 전민정, 이인선, 안정관, 차상철. 韓方再活醫學科學會誌에 收錄된 臨床論文에 대한 體系的 分析과 適用 -腰痛을 중심으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2;12(1):101-9.
8. 백승일, 안중철, 김형진, 김형석, 권기록. 대한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련논문의 유형분석. 대한침구학회지. 2006;23(6):19-27.
9. 서영민, 장규태, 김장현.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분석 및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4;18(1):247-72.
10. 최인화. 아토피 피부염 임상 연구의 최근 3년간 동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3):138-46.
11. 정우빈, 이경우, 황인동, 이동희, 이수영.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무작위대조시험논문의 질평가. 대한가정의학회지. 2009;30(8):626-31.
12. 고미미, 고희연, 강병갑, 김보영, 유병찬, 설인찬, 이인, 조현경, 최선미.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수록된 임상관련 논문 및 뇌중풍 관련 논문 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6;27(1):1-8.
13. 김민희, 김자혜, 신상호, 노영호, 유현정, 김

훈, 김규곤, 윤화정, 고우신. 청장년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2):223-32.

14. 김창훈, 김정태, 정현아, 노석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한방 추출물이 포함된 외용제품에 대한 임상 효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87-98.

부 록

<원저>

(1) 기술적 연구

1. 김경미, 이길영.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2;15(2):220-7.
2. 김혜정.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체질분석.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3):200-9.
3. 김민희, 김자혜, 신상호, 노영호, 유현정, 김훈, 김규곤, 윤화정, 고우신. 청장년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2):223-32.
4. 윤대철, 최종민, 김희택. 제천 지역의 초등학교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61-70.
5. 신윤진, 김윤범, 윤상협. 脈診器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임상적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2):112-9.

(2) 분석적 연구

(3) 실험적 연구

① 동물실험 연구

1. 박응식, 최인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서 消風清營湯加味方이 각질층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3):96-115.

2. Sung-Hun Kim, Jung-Hwa Choi, Jong-Han Kim, Su-Yeon Park. Effects of Tang-gwi-eum-za-gagambang along with External Spray Therapy on the Spontaneously Occurring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in NC/Nga Mouse.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1):27-49.
3. 민영규, 최정화, 김종한, 박수연. 消風散加減方과 外治方병용이 NC/Nga 아토피 생쥐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1):116-34.
4. 손정민, 홍승욱. 防風通聖散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동물모델의 피부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1):99-114.
5. 황치환, 윤채성, 송승현, 원영호, 황충연. 葛根解肌湯加味方과 三黃洗劑加味方 병용이 NC/Nga 생쥐의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2):1-18.
6. 장성은, 김윤범. 小葉麥門冬이 NC/Nga 아토피 모델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3):10-19.

② 임상실험 연구

1. 심상민, 정애숙. 아토피성 피부염의 광선치료(GI-2000) 효과.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3):80-87.
2. 김창훈, 김정태, 정현아, 노석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한방 추출물이 포함된 외용제에 대한 임상 효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87-198.
3. 신상호, 김자혜, 김미보, 윤화정, 유선애, 이승

연, 이미연, 김규곤, 고우신. 升葛湯을 사용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99-212.

4. 황순이, 황보민, 지선영, 김소연, 권영규, 서정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七葉膽을 함유한 화장품의 임상적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3):212-21.
5. 김성호, 윤대철, 김희택, 호동수, 윤경섭. 連翹升麻湯이 함유된 한방화장품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임상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2):126-141.

(종설)

1. 공남미, 지선영. 아토피 피부염의 양·한방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999;12(1):254-67.
2. 박혜선, 지선영, 구덕모. 아토피 피부염의 중의외치법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2001;14(1):32-41.
3. 박민철, 김진만, 홍철희, 황충연. 아토피 피부염의 동서의학적 문헌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2;15(1):226-52.
4. 이길영, 김혜정.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식품 알레르기의 역할에 대한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33-41.
5. 조용주, 김진주.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시기별 변화에 대한 경락학적 해설.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1):1-15.
6. 손정민, 최인화. 아토피 피부염에서 유전자 연구와 사상체질의학적 접근의 상관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2):1-9.
7. 이상현, 윤용갑. 아토피 피부염 치료 처방에 대한 方劑學的 考察.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103-11.

8. 최인화. 아토피 피부염 임상 연구의 최근 3년간 동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3):138-46.
9. 허인희, 서민수, 심성용, 김경준. 영 .유아 아토피 피부염의 식이요법에 대한 지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2):71-9.
10. 신상호, 김미보, 변석미, 이호섭, 박선규, 고우신, 윤화정. 아토피 피부염의 외치법에 대한 고찰 -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2):80-93.
11. 손병국, 최인화. 아토피피부염의 변증과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3):150-165.
7. 정진영, 김윤범. 桂枝加黃芪湯으로 치료한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험 3례 - 삼출을 주증상으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2):131-9.
8. 임웅경, 선영재, 옥민근, 김창환, 백승훈.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방적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3):114-9.
9. 윤희성, 이길영, 김윤범. 蘆薈 Dressing을 활용한 급성기 아토피피부염 환자 치험 8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3):153-66.
10. 심은기, 안찬근, 두인선, 황충연. 아토피 피부염 치험 2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2):109-17.
11. 정아름누리, 홍승욱. 화폐상습진을 동반한 성인형 아토피피부염의 한방 치험 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2):296-303.
12. 허인희, 홍성민, 엄유식, 변학성, 심성용, 김경준. 외치요법을 위주로 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증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201-8.
13. 홍성민, 허인희, 변학성, 심성용, 김경준. 상한론 처방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1례 보고.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230-9.
14. 김형준. 세명대 한방병원 부인/소아과에 내원한 아토피성 피부염환자의 임상치험 2례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247-55.
15. 손병국, 최인화. 濕熱로 변증한 급성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험 6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213-29.
16. 서민수, 허인희, 심성용, 김경준. 柴胡桂枝湯加味方 투여로 호전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 증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3):215-25.

〈증례보고〉

1. 지선영. 아토피성 피부환자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994;7(1):185-92.
2. 정찬호, 지선영.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단식치료 2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995;8(1):153-62.
3. 김혜정. 급성 화폐상 습진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방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2001;14(1):111-6.
4. 구영희, 최인화. 만성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 치험 3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2;15(1):140-50.
5. 심성용, 김성범, 김경준. 만성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외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179-90.
6. 박호순, 김윤범. 六味地黃湯加味方으로 치료한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험 5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2):255-60.